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1년 28호

여름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2011년 제28호 여름호



시론 3. '陟陟同時'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동문회 | 서국진(회장)

인터뷰 4. 의학학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 김성덕(의약학계열 부총장)

동문회소식 5. 회장단회의  
8. 2011년도 정기총회  
10. 2010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12. 2011학년도 의약학계열 합동입학식

회장단 및 이사명단 13. 18대 동문회 회장단 및 이사 명단

동기별소식 16. 29회 동기회 | 이준(29회) 동기회장

지부별소식 18. 은평구 '은중회' | 한상훈(22회) 지부회장

동기회소식 20. 5회 50주년을 마치고... | 김명섭(5회) 동기회장

약국도움이야기 22. 희귀의약품(orphan drug) | 편집위원회

학교소식 26. Pharmacoeconomics의 석학 서동철 교수

문학산책 27. 旅遊(여유): 타향을 여행하며 | 허인회(4회) 명예교수

28. 지리산 블루스 | 박희용(23회)

32. 2010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33. 만평 黎明의 나라...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34. 발전기금 조성 내역

38. 편집후기

##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1년 7월 27일

발행 : 2011년 7월 30일

발행인 : 서국진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 ‘啐啄同時’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동문회

총동문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한 13회 졸업생 서국진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동문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문들은 개국약사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약사나 병원약사로서 직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약사업 진출과 교육계 및 연구 직능에 진출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동문님들을 항상 존경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교의 동문회가 자리잡기까지 8천여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사랑, 그리고 역대 회장으로서 희생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본회 고문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약업계의 현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와 조제로 인하 문제, 그리고 약대의 신설과 왜곡된 증원 문제 등 우리에게 닥친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조와 단결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졸탁동시(啐啄同時)”의 고사성어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겐 한국을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자랑스런 모교가 있습니다. 약대 6년제의 우수하고 훌륭한 신입생을 처음 받아 들였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약대의 건물이 완공되어 곧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과 동문회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

이렇게 훌륭한 동문 선후배님들과 저희 모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동문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21C를 준비하는 저희 동문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동문회 장학기금의 모금운동을 다시 전개하여 장학기금의 확충과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수한 동문님들이 동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동문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각종 학술제와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셋째, 동문 선후배님들의 교류증진과 끈끈한 우애를 위한 지부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동문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지 말고 여러분들이 동문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선후배님들의 하시는 사업 나날이 번성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약학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 김성덕(의약학계열 부총장)

## 1. 최초의 의약학계열 부총장 임명을 축하드리며, 취임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의학, 약학 분야의 통합 운영 체제의 초대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의 약학대학과 날로 발전하는 의대, 의료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Win-Win 전략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2. 계열별 부총장제 도입 배경과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18개 단과대학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는 형평성 논리에 밀려 연구와 교육,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없게됨에 따라 중앙대학교가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학문단위 재편성과 대학 경영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학과의 육성, 유사 중복학과 통합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학문단위 재편성이 시행되었으며, 대학을 대표할 명품학과 육성을 위해 계열별 특성에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함께 계열별 책임 부총장제를 도입해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각 계열의 부총장은 예산, 인사, 교육 및 연구분야에 걸쳐 상당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갖는 자율책임 운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어 연구, 교육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중앙대는 의약학 공간이 동일 지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 약학대학 및 R&D센터의 완공으로 모든 의약학 계열 연구시스템의 집약이 완성돼 앞으로 활발한 융합연구와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의약학 분야가 중요한 한 꼭지를 담당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 3. 향후 약학대학 발전에 대한 부총장님의 구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료원은 물론 이공계의 각 분야와 협력하여 모든 의생명 분야를 총괄하는 메디컬 컴플렉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엔 전혀 없으며, 일부 의료선진국에서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중앙대학교 Health Science and Care System(HSCS)을 만들어 중앙대의 위상을 한국 최고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은 올해부터 6년제로 바뀌는데, 약대 전환 첫 시기에 학문단위 재편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약대 6년제 학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임상약학교육의 활성화, 신성장 보건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약사 양성 등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의약학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약학대학의 발전에 관한 저의 구상은 신성장 보건의료 산업에 관여하는 전문약사를 양성한다는 비전하에 의약학 융합적 이론 및 실무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약사의 전문성 강화, 의료원과 협력하여 전문병원 등 임상약사 교과과정의 운영, 연구·교육 및 공직약사 집중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략을 갖고 융합의 win-win 전략에 근거한 발전 방안을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 신년교례회



- 일 시 : 1월 8일 오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최종목, 임완호, 권혁구, 유정사 고문, 김창중 자문위원, 김명웅, 정진모, 임영식, 김수배, 강희윤, 한만영, 유대식, 황규진, 김정수, 한갑현, 김정호

### 제 10 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3월 11일 오후 7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최종이사회 준비의 건
  - 일 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3층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 일 시 : 3월 15일 오전 11시
- 장 소 : 모교 교수세미나실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유정사, 권혁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손의동, 이민원, 황완균, 황광우 교수

### 장학기금운영위원회



- 일 시 : 3월 23일 오후 1시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유영후, 유정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황완균 교수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 일 시 : 3월 30일 오후 4시
- 장 소 : 모교 교수세미나실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유영후, 임상목, 유정사, 권혁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손의동, 최영욱, 이민원, 황완균, 황광우 교수

### 고문단회의



- 일 시 : 4월 5일 오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동문회 주요현안의 건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오세형, 최종목, 임완호, 유영후, 임상목, 유정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 감사수감



- 일 시 : 4월 15일 오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이호섭, 서국진 감사, 유대식 사무총장

### 최종이사회



- 일 시 : 4월 20일 오후 7시
- 장 소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3층
- 안 건 : - 2010년도 수입·지출 결산 심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건  
- 비품폐기의 건

### 인수인계



- 일 시 : 6월 1일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윤대봉 고문, 유대식, 한갑현 사무총장

### 고문단 및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 일 시 : 6월 9일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김대경 학장, 오세형, 최종목, 유명후, 유정사, 윤대봉 고문, 황완균 교수, 한갑현 사무총장

### 안국신 총장 면담



- 일 시 : 6월 15일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이종각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 일동제약 윤원영 회장 면담



- 일 시 : 6월 16일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 여동문화 월례회 참석



- 일 시 : 6월 18일
- 장 소 : 거구장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강희운 여동문화회장, 정덕화, 신정숙, 김애경, 이경옥, 곽나윤, 양덕숙, 백영주, 도민숙, 우경아, 한갑현 사무총장

##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격려 방문

- 일 시 : 6월 18일
- 참석자 : 서국진 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 유한양행 김윤섭 회장 면담

- 일 시 : 6월 20일

## 제 1 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6월 24일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1. 회장단회의의 발전방향 및 회비논의 건  
2. 이사, 일반회원 회비 인상논의 건  
3. 동문회관 이전 준비의 건

## 일양약품 정도연 회장 네이밍도네이션 1억 기부



- 일 시 : 7월 6일

## 구주제약 김명섭 회장 네이밍도네이션 1억 기부



- 일 시 : 7월 11일

## (주)그래미 남중현 회장 네이밍도네이션 2억 기부



- 일 시 : 7월 14일



## 2011년도 정기총회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신임회장에 서국진(13회) 동문 선출

**동문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향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윤대봉 회장, 유용태 중앙대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김대경 중앙대약대학장, 정지석 서울약대동문회장, 심종보 성균관약대동문회장, 차도련 이화약대개국동문회장, 김옥희 숙명약대동문회장 등 동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는 2010년도 중요업무와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17대 동문회장인 윤대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약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의 판매와 조제료 삭감, 약대증원에 따른 왜곡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부단결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며 동문회 선, 후배간 단결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부순서로 임원 선출에서는 서국진(13회) 동문이 제18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취임사를 통해 "중대약대 동문회는 지난 시간 역대 회장님들과 동문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저력이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지향하는 자랑스런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나를 위해 동문회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기 보다는 동문회 발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동문회장 선출에 이어 임원 선출에서는 이호섭(12회), 최창엽(13회), 김명웅(14회) 동문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에는 한갑현(26회) 동문을 지명했다.





수상자 명단

- ▶ 총장공로패 허인회(4회), 김명웅(14회)
- ▶ 총동창회장공로패 정덕화(2회), 안인혁(6회), 임영식(15회)
- ▶ 학장공로패 김수배(21회), 박영달(27회)
- ▶ 동문회장공로패 김용의(15회), 김홍진(20회), 박인성(22회), 임재영(22회), 함삼균(24회), 민병희(27회), 오영자(30회), 백영주(30회), 안광열(32회), 강용남(34회), 김진수(36회), 이태경(36회), 신명숙(43회)



총장공로패



학장공로패



총동창회장 공로패



동문회장 공로패



## 2010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2010년** 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17일 오후 2시에 중 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는 약학전공 58명, 제약학전공 6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김성덕 의무부총장, 강희운 여동 문회장을 비롯 명예교수, 재임교수 등과 많은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윤대봉 회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런 분들 덕택으로 사회가 발전했고 국가가 융성해 왔으며 문명 또한 성장 해 온 것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대경 학장과 재임 교수들은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나눠주며 아쉬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 2010학년도 제55회 졸업생 명단

전공	성명
약학전공	최재명 유상지 강명구 강승은 공기라 이원호 조재범
	최승용 최윤정 김용수 김혜성 윤성수 황인아 강수원
	권여정 김경현 김민성 김의연 김준기 김지순 김지현
	김채진 김혜미 나연주 문병철 박상희 박정은 박지은
	박지은 성은지 성일경 성지는 오혜리 이경빈 이새롬
	이석영 이수엽 이슬기 이지수 임희정 장근민 장자윤
	장희만 정석현 정우열 조사라 조윤신 조은아 조현덕
	최민근 최수진 하해찬 한선영 한혜경 김미진 김희진
	양근영 오혜영
	= 【이상 : 약학전공 58명】
제약학전공	정연경 김우석 조성호 권영웅 박제현 유종선 임경택
	임재승 장영욱 강혜진 공선영 구현정 권오성 김경희
	김미랑 김민규 김민정 김성태 김영진 김은미 김재봉
	김정균 김지현 김하라 김혜린 김혜미 남윤진 박경은
	박민혜 박인애 배윤경 서효원 석형남 성지훈 송경주
	신봉기 안병길 양서연 양준모 오남석 유현민 윤기훈
	윤주원 이상곤 이수정 이유은 이정민 이혜주 임경선
	장범현 전설희 정성희 정재한 조현선 조희진 주민성
	최병섭 최서희 최지수 한정훈 허시은 형경은
	= 【이상 : 제약학 전공 62명】

■ 2010학년도 제55회 졸업생 수상자 명단

교내학술상		교외수상자			
구분	성명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학수석	김지현	연강상	김지현	안산동문회	김민정
전공수석	강혜진	대한약사회	강혜진	영동포동문회	김혜린
	성은지	서울특별시약사회	황인아	강남자부 동문회	오혜리
전공차석	장근민	경기도약사회	김지현	한미약품(주)	최수진
	최서희	동작구약사회	형경은	일동제약(주)	박경은
공 로 상	김민성	본동문회	한혜경	삼진제약(주)	강수원
	이원호	여자동문회	이석영	건일제약(주)	김은미
	남윤진	안양동문회	박상희	(주)안누리약국체인	정성희





사 진 으 로 보 는 동 문 회 소 식

# 2011학년도 **의약학계열 합동 입학식**

(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일시 2011년 2월 2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

제18대 회장단 명단

18대 동문회 회장 : 서국진(13회)

사무총장 : 한갑현(26회) 사무부총장 : 김정호(27회), 이영주(28회)

제 13 회	서국진, 박동규, 문재빈, 안병식, 이종각, 이상길
제 15 회	박석동, 임영식, 이상용, 박원봉
제 16 회	조기현, 김광식
제 17 회	김성지, 신상직, 장재인
제 18 회	김기명, 전광우, 정명진
제 19 회	이경옥, 김경오, 옥태석, 이창욱
제 20 회	이상일, 정찬현, 김홍진, 김현태
제 21 회	김수배, 김중효, 홍종오
제 22 회	유대식, 강희윤, 최광훈, 전일수
제 23 회	정덕기, 하총렬
제 24 회	이규삼, 함한성, 함삼균, 황규진
제 25 회	최두주, 김광호, 이내홍, 김희섭
제 26 회	한갑현, 최민규, 오옥희, 김정수
제 27 회	김정호, 박영달, 곽나윤, 오흥설, 이원일
제 28 회	이병천, 양덕숙, 이상수, 이해룡, 이영주
제 29 회	한일룡, 현상배, 이진자
제 30 회	김광식, 도민숙, 김상의, 백영주
제 32 회	정선종, 조양연
제 33 회	조준상, 최재희
제 34 회	김보원, 한일권
제 49 회	김원호

## 제18대 이사 명단

제 1 회	홍흥만, 김옥동, 김기흥, 김순일, 손동현, 이광표, 이동화, 장 레, 박학전, 조덕렬, 오유진
제 2 회	이문규, 김종욱, 김홍식, 이택성, 정덕화, 지선훈, 박문호, 최관용, 신양균, 서화택, 한성순, 최영대, 황재수
제 3 회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이병균, 오세형, 최종묵, 박기하
제 4 회	천흥기,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흥수, 박노일, 박승배, 정재훈, 김재승, 안국영, 우정희, 이창우, 한민희, 허인회
제 5 회	김상오, 김명섭, 김영배, 김채윤, 박명자,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정훈교, 임영규, 조동준, 강태일, 변동선, 정혜영
제 6 회	임성기, 김경희, 김동열, 신정숙, 유상열, 박정배, 유관열, 전희태, 진교성, 안병한, 안인혁, 임완호, 홍병석, 임철부, 장정희, 장지용
제 7 회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김정부, 김영일,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조원, 최춘자, 한철희
제 8 회	조익환, 임상목, 김돈기,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유영수, 한석원, 김연희, 김홍자, 허근희, 배영애, 장영자, 김신자
제 9 회	권혁구, 이규진, 김의섭, 강군모, 권태섭, 김정보, 김창용, 상병준, 양무웅, 이근배, 최인자, 황태선, 박성학, 손승연, 김영빈, 김영부, 김 철, 김학원, 윤광노, 박장우, 최영근, 허 룡, 문영동, 김형규, 김홍래, 노신희, 이찬호
제 10 회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서정목, 유정사, 이대윤, 이양원, 전광석, 이영민, 이흥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주정덕
제 11 회	김승업,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김미자, 김창중, 박승보, 박상희, 박찬희, 박희경, 김정길, 고승하, 최옥출, 신명승, 이명자
제 12 회	심재웅,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우준하, 이효훈, 이성우, 조택상, 최병호, 이관하, 이정구, 염윤기, 서태옥
제 13 회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최창엽, 안병식, 김종성, 김병현, 박현숙, 신선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오영지, 엄계숙, 임유재, 송옥순, 황근성, 이우식, 구연홍
제 14 회	김명웅, 윤대봉, 김종렬, 조길도, 정진모,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조양연, 지성배, 채성기, 홍성철, 현수홍, 안해봉, 이희영, 유효성, 김인덕
제 15 회	임영식, 윤종준, 강용순, 조찬희, 김윤빈, 이상용, 고동석, 박원봉, 이영운, 권영선, 오세일, 임순만, 김영만, 원장희, 정해성, 김용의, 위혜주, 최영덕, 박석동
제 16 회	유기욱, 김광식, 허사길,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이은술, 이은주, 하상권, 최창원, 고숙자, 이범준, 한인희, 김제성, 백승복, 차동일, 최광식

제 17 회	김인형, 장재인, 양희익, 신상직, 선우영환, 주완표, 김기중, 김대희, 김성지, 김성택, 김인회, 김재천, 김종환, 김태성, 신창억, 유승화, 이동우, 전상훈, 윤수근
제 18 회	강응모, 전광우, 김기명, 정명진, 김상각, 조중형, 최수형, 임종진, 이원영, 김승열, 한창일, 박원래, 김애경, 강성원, 박광숙, 최한규, 박계환
제 19 회	윤건섭, 김경오, 이경옥, 김미담, 김홍옥, 남상구,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차영수, 민상임, 이은영, 신성희, 성귀현, 신성익, 권창호, 백광현, 이창욱
제 20 회	최석중, 이호선, 김홍진, 박영근, 구장림,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현, 유영내, 권오규, 이극선, 오상동, 이영희, 류화송, 송열호, 이상일, 박지순, 황양호
제 21 회	이상준, 김수배, 홍종오, 김두수, 이규섭, 전명선, 김동학, 김중효, 백운경, 박전희, 한성희, 이세진, 김동연
제 22 회	유대식, 강희윤, 박상용, 최광훈, 한만영, 강명희, 김홍진, 오황영, 이명옥, 이준상, 손의동, 이현희, 차달성, 정진호, 전철호, 이규홍, 한상훈, 전일수
제 23 회	임준석, 정덕기, 조병훈, 강한구, 곽창림, 권경자,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이승하, 정세희, 제갈희, 조근태, 하충렬, 김영식, 조경준
제 24 회	이규삼, 김승재, 이광섭, 황규진, 박관수, 정종근, 윤규형, 박길태, 김태두, 함삼균, 조중래, 임형균, 양성삼, 갈원일, 오진영, 최영욱, 함한성
제 25 회	최두주, 이내홍, 고성권, 김광호, 김영식, 김희섭, 이재희, 이민원, 조석현, 전경숙, 김춘규
제 26 회	최민규, 김정수(B), 한갑현, 김정수(A), 진희역, 정태형, 김안식, 선우일원, 박재길, 백낙기, 하재일, 이승헌, 양승훈, 최교석, 노수원, 손영득, 윤광중, 윤용혁, 이영준, 오옥희
제 27 회	김정호, 박영달, 최면용, 곽나윤, 오홍설, 이무택, 이원일, 이혜숙, 현기원, 민병희, 김경희, 김창식, 유재수, 서평석, 한봉길, 최충식, 오순용, 김덕진, 하성주
제 28 회	이병천, 김영희, 양덕숙, 김희식, 고재호, 송준용, 신영무, 안희규, 유희동, 이숙희,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이상수
제 29 회	이 준, 이종민, 하숙량, 유승열, 이진자, 손병로, 현상배, 김은진, 한일용
제 30 회	고석일, 김경자, 백영주, 김광식,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김혜수, 정용진, 신일균, 최병태, 이진우, 정의차, 김정일, 도민숙, 김상의
제 31 회	이성표
제 32 회	이경우, 조양연, 전경숙, 정영복, 김신규, 서용욱, 정선종
제 33 회	이정수, 조준상, 최재희
제 34 회	김보원, 한일권, 민성일, 백희숙, 정성아, 전형수
제 49 회	김원호

# 29회 동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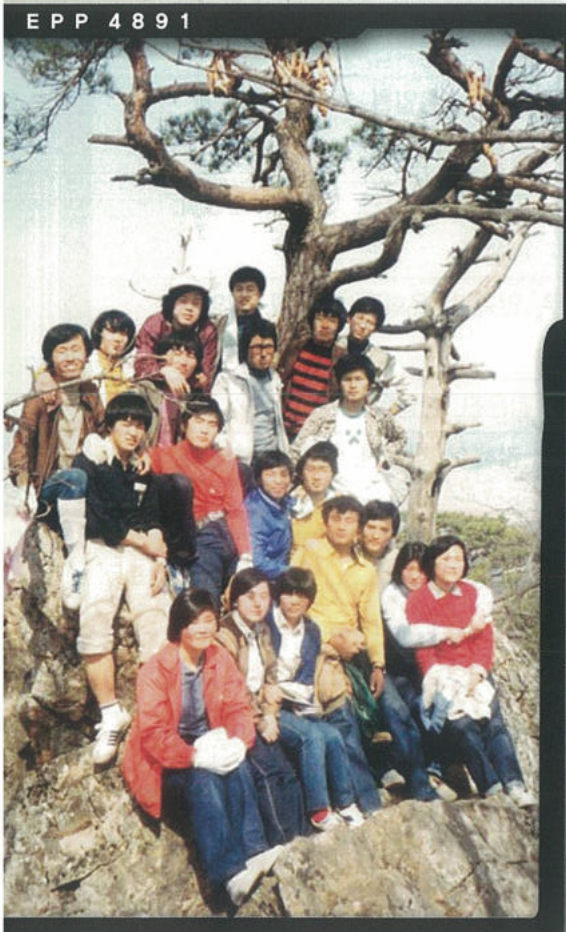
## 입학 30주년?

30년 전보다 31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31년 전은 고3 때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바로 그 해이지요. 언론통제가 되던 탓에 서울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긴 줄 모르고, 하긴 고등학생이었으니 더 더욱 그러했지요.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은 7월 30일 본고사폐지에 과외금지였습니다. 당시 나는 국영수 모의고사보면 전교 10등안에 들었는데, 예비고사(수학능력?) 모의고사보면 반에서 30등이 넘는...

국영수만 공부했었죠. 원래는 8월부터 과학, 사회 등을 과외하여 만회할 준비를 했었는데, 망했죠~.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다니던 형들이 대학이 휴교라서 맨날 놀았어요. 그걸 보고 나도 대학에 가면 좀 놀아야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길로 결국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던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란 드라마를 좋아했었는데, 그 꿈은 수강신청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학대학이 아니라 약학학원이 아닐까 하는 엄청난 수업!

이런 분위기를 조금씩 조금씩 깬 것은 "실험반"이었습니다. 1층부터 아~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기반, 약제반, 생약반, 미생물반, 정성반, 정량반, 약물반, 생화학반, 병태생리반. 뭐하는 건지는 잘 몰라서 "등산과 채집"을 한다는 "생약반"이 맘에 들었습니다. 몇 몇 얼굴을 봐둔 놀기 좋아하게 생긴 친구들과 같이 생약반에 들어갔지요. 강경애, 강선영, 강춘원, 김인범, 김현태, 박웅삼, 윤문수, 이상수, 이상원, 이송락, 이승재, 이연주, 이영복, 이종민, 이종수, 이철, 장귀연, 전영빈, 조석제, 하숙량, 한규인. 이것은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틀렸다고 뭐라고 그러지들 마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 2명만 남고 전부 3학년때 생약반에서 퇴출되었으니까요. 실험은 거의 안하고 채집만 다녔으니 그럴만도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퇴출되었던 생약반 친구들을 아직도 만납니다.

우리 학번이 특이했던 것은 지방의 유명 고등학교 뭐 대전고등학교라





든지 여하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좋은 곳을 시험보고 들어갔던 마지막 세대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비율이 여자보다 훨씬 많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워낙 놀기들은 좋아해서 PBA(중대약대야구부?)도 기억이 납니다! 이상수, 이승재 등이 만든 “푸름”이라던지, 많은 모임들도 만들었지요. 실험반대항 체육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생약반이 제일 잘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무기반이 라이벌이었죠. 이재성, 장병곤, 하정이, 한지온 등이 약제반이었던 것 같은데, 참 내 이중사촌인 임주애도 약제반이었던가? 기억이 안나네요. “병태생리학” 책을 사는데, 아버지한테 “병태”책과 “생리”책 산다고 책값을 두 배로 받아서 희희낙락했는데, 주애가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김인혜, 김미숙, 김미자, 김영자”팀과 “오혜선, 이애진, 장귀연, 정경애”팀 이렇게 몰려다니던 친구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는지~

“조석제+강선영”, “이국재+정영”, “이재성+하정이” 20년 넘게 같이 자고 있구먼요

김은진, 김혜성, 한지온은 형수로 업그레이드되고 현역이었던 나에 비해 재수생들, 특히 뭐 종로학원파인지. 이국재, 이성문, 이충희, 조승길 등등 많죠 이젠 1~2살 차이 별거아닙니다~ 전옥은 어디 출판사, 여상돈은 무슨 가구회사 한다더니 연락이 없구요. 군대를 갔다와 보니 장우성 형님이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준(29회) 동기회장

84년도 4학년때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 못한다고 제가 호소했던거 기억나나요?(데모는 아니었고) 동기들이 수강신청을 거부해서 제대로 마무리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빨강게 살았던 강춘원은 특허청에 있고, 맨날 “아베마리아”만 부르던 김인범은 식약청에 있습니다.

나현오, 박화경, 성은주, 송지숙은 수녀님이 되셨고, 동기들이 약사회 회무 참여도 시작하여 93년 한약분쟁때에는 정진호가 몇 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죠. 안양시약사회장 손병로, 부천시약사회장 한일룡, 광진구약사회장 현상배 등이 약사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대 다닐 때만 해도 약국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약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시련은 있습니다!

**자~ 29회 파이팅!!**

# 은중회

\_ 은평구에서 개국한 중앙대학교 약학대동문 모임

은중회는 은평구에서 개국한 중앙대학교 약학대동문 모임입니다

한상훈 회장님과 총무 임기민, 재정총무 윤희경 외에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짝수달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회에 17명 전후의 참석으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과거엔 의약분업의 여파로 명맥만 유지하였으나, 현 은평구약사회장이신 전광우회장님이 2008년 동문회장에 취임하면서 동문회 활성화에 노력하신 결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한상훈회장님 때에는 일년 6번의 모임중 6월모임은 야외에서, 12월모임은 노래방을 대여, 파티분위기로 송년모임을 갖는 등 단조로운 모임에서 탈피, 젊은 동문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야외모임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난지캠핑장에서 바비큐파티로 진행되어 마치 펜션에 놀러온듯한 분위기속에서 멋있고 맛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풍성한 식사를 하였으며, 올해에는 소풍을 테마로해서 상암월드컵공원내 호수공원 개울가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간 도시락과 간단한 안주거리로 마치 소풍 온듯한 분위기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두 번의 야외모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모두 내년의 모임을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임뿐 아니라 서브3의 기록으로 마라톤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선우일원 동문의 활약으로 많은 은중회원이 봄·가을로 5km 및 10km에 도전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으며, 이경우 동문은 기타동호회장을 맡는 등 다방면으로 은평구 약사회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은중회는 현 은평구약사회장이신 전광우회장님을 비롯하여 전 은평구약사회장이었던 임상목회장님과 현 은평구약사회 총무담당부회장인 선우일원, 현 은평구약사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인 우경아와 정장진부의장님과 이경우약학위원장 등 약사회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간 경조사를 꼼꼼히 챙김으로서 회원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후배동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22회) 지부회장

5회 50주년을 마치고...

# 만나고 싶고 반가웠던 친구분들.....



김명섭(5회) 동기회장

쾌청하고 화창한 날씨, 2박 3일 동안 진행된 졸업 50주년 모임에 참석하여 준 친구분들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50주년 행사를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으나 역시 아마추어인지라 OB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그럽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관광회사에 위탁하여 계획을 잘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호텔 이외의 부분들은 모두 직접 하기로 마음 먹고 일일이 점검하고 지역약사회에 부탁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덕을 많이 쌓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더 후회가 남지 않고 우리 5회 동기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쾌청한 날씨마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것 같았습니다. 오월의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닷바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가슴까지 뺨 뚫리는 것 같은 파도소리……. 어찌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번 여행은 정말 기억에 남을만한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오랜만에 들었던 동기들의 노래솜씨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특히 변동선 동문이 범정스님의 무소유에 수록된 '친구여'라는 시를 읊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수웅 동문을 케이블카 앞에 혼자 내려놓고 왔던 해프닝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남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삼천포에 도착하여보니 통영대교와 다도해 청정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시간과 계획의 차질로 외도를 구경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 새로 개통된 해저 터널을 거쳐 부산해운대에 도착해 계획에 없던 점심식사였지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삼천포에서의 자연산 도미, 현대호텔에서의 중국요리, 한 시간 여에 걸쳐 먹었던 한정식 등등……. 진수성찬(?)을 먹다 보니 나중엔 모두 간단히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모두 같이 한마디씩 하며 건배를 했을 땐 옛 추억이 떠오르며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또한 맛있는 떡을 대접해준 송규석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멀리 순천에서 통영, 그리고 해운대까지 함께해준 우정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산을 떠나 경주에 도착해서는 불국사에 올라가 우리 동



창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리고 1년의 평온을 기원하는 글을 방명록에 남기고, 그 기원이 멀리멀리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정혜영, 강태일, 변동선, 이수웅 동문과 나 김명섭이 함께 힘있게 타종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1957년에 입학하여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한 후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친구라 부를 수 있고 먼 길 여행도 선뜻 따라 나서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번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윤원형, 김채운, 조동준, 김명섭, 정훈교, 박영규, 김영배, 김상오님과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선물해준 임맹순 동문님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에 흡족해하며 잘했다는 말을 하였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분들도 모두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가정에 행운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만날 때 까지 안녕히…….

# 희귀의약품 (orphan drug)

## | 편집위원회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메디컬 드라마나 수사물 등을 보노라면 이미 검증이 된 극적인 재미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조차도 지도 못한 병, 보지도 못한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기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희귀한 유전병인 다운증후군을 기억한다면, 인체에서 발생하는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유전성 질환만해도 4,000종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으로서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KODC; Korea Orphan Drug Center)가 설립되어 있다. KODC는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희귀질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희귀질환 치료의 기회를 확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정부지원에 의해 설립된 센터이다.

## 희귀의약품의 기준

희귀의약품이란 말 그대로 환자 수가 적으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1호; 2009.12.31. 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50만불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인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의약품 공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KODC 희귀의약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은 178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몇 가지 희귀질환과 함께 사용되는 의약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 **페닐케톤뇨증 (phenylketonuria; PKU)** :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페닐알라닌 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이 선천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페닐알라닌과 그 대사 산물이 축적되어 지능장애, 담갈색 모발, 피부의 색소 결핍을 초래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성 질환이다.

→ 5-HTP 캡셀 (5-hydroxytryptophan);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 **뮤코다당증 (mucopolysaccharidosis; MPS)** : MPS는 과거에 mucopolysaccharide라고 명했던 glycosaminoglycans(GAGs)의 분해에 필요한 라이소좀 효소의 부족에 의해 야기되는 유전병으로 GAGs가 세포의 라이소좀내에 축적되고 소변으로 과도히 배설되면서 점차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퇴행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질병군이다.

→ 나글라지임 주 (galsulfase); 삼오제약 공급

→ 알두라지임 주 (laronidase); 삼오제약 공급

◆ **윌슨병 (Wilson's disease)** : 간이나 뇌에 구리가 이상축적을 하여 간경변, 대뇌기저핵의 변성, 각막 가장자리에 녹갈색의 고리모양이 생기는 병이다. 윌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는 담도로 구리의 배출이 감소되며 간, 뇌, 신장, 및 각막에 구리가 침착되어 진행성의 만성간염, 신경학적 손상, 신세뇨관 기능장애 및 각막환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노벨진 캡슐 (zinc acetate dihydrate); 현대약품 공급
- 윌리진 캡슐 (zinc acetate dihydrate); 글로벌데이몬파마 공급
- 에이톤트리엔틴 캡슐 (trientine HCl); 파마링크코리아 공급

◆ **고셔병 (Gaucher disease)** : 우리 몸에 꼭 필요한 glucocerebrosidase(GC)라는 효소의 결핍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복합지방질이 망상계 세포 내에 축적됨으로써 빈혈, 혈소판 감소, 간비장비대, 골수침윤, 때로는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으로 임상적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임상유형은 발병시기 및 진행속도와 신경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 세레자임 주 (imiglucerase); 삼오제약 공급

◆ **간질성방광염 (interstitial cystitis; IC)** : 성인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질병 중의 하나가 방광염이다. 이 질환은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나 그 증상의 괴로움과 재발성은 심각한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와 우울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 잘 낫지 않는 방광염 중에 특히 빈뇨와 함께 배뇨시 통증, 급뇨의 증상이 심하고 항생제를 복용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일단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고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엘미론 캡셀 (pentosan polysulfate sodium); 제이텍 바이오젠 공급
- 종근당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캡슐 (pentosan polysulfate sodium); 종근당 공급

◆ **폰 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s disease)** : 혈전 형성기능에 이상이 오는 병이다. 출혈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혈전이 형성되어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이 질환이 있으면 더 쉽게 출혈이 생긴다. 폰빌레브란트 질환은 부모에서 자녀로 유전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 질환에 의해 생기는 출혈 문제는 대개 경미하다. 출혈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상 혈전 형성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다.

- 옥토스팀 나잘스프레이 (desmopressin acetate); 한국페링약품 공급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adrenoleukodystrophy; ALS)** : ALS는 질환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섬유축삭연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병변이다. ALS에서는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질환”으로 불리우며, 1930년대 이 질병을 앓았던 운동선수의 이름에 기원하여 “Lou Gehrig씨 병” 불린다. 병태생리적으로 ALS에서는 대뇌피질



및 뇌간, 척수에 위치하는 운동신경세포들이 파괴됨으로써 근육들이 운동신경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운동기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발병빈도는 인구 100,000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이다.

→ 유스 뉴로솔루션 (aqueous solubilized ursodeoxycholic acid); 유스팜 공급

◆ 동맥관개존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 동맥관은 태생기에 좌측 여섯째 동맥궁 (aortic arch)으로부터 유래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연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태생기에는 폐혈류의 대부분이 동맥관을 통하여 대동맥으로 가나 출생후 평활근의 수축으로 생후 10-15시간 내에 기능적 폐쇄가 이루어지며, 해부학적으로는 대개 2~3주에 닫혀진다. 동맥관이 개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혈관 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대동맥 혈류가 폐동맥으로 유입되는 단락을 형성하게 된다. 여자에서 빈도가 높고,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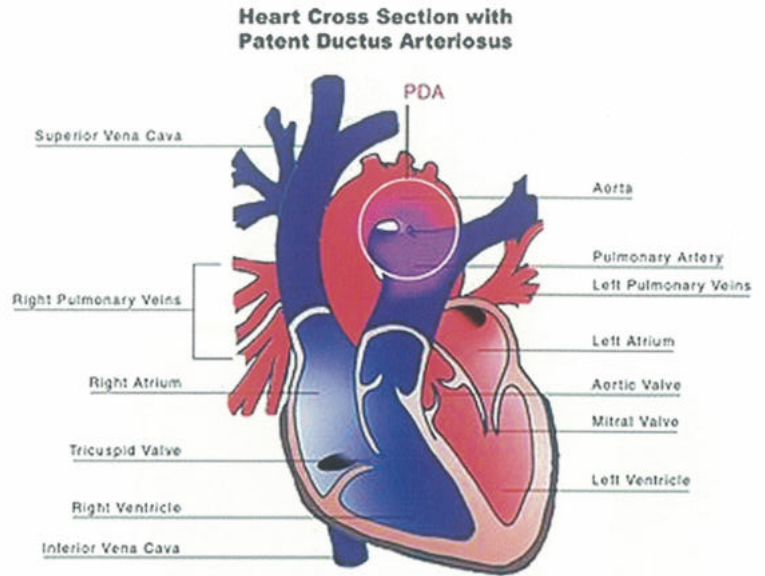
→ 인도신 주 (indomethacin sodium); 파마링크코리아 공급

◆ 파브리병 (Fabry disease) : alpha-galactosidase A 라는 효소가 없는 질환이다. 이 효소는 글리코스핑고리피드라는 당지질의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로서, 이것이 없으면 그 물질이 배설될 수 있는 좀 더 단순한 물질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내의 어떤 조직에 축적되게 된다. 이 물질은 어디에나 축적되는데 특히 신경과 신장을 잘 침범한다.

→ 파브라자임 주 (agalsidase beta); 삼오제약 공급

◆ 포르피린증 (porphyria) : heme 생합성 과정의 선천성 효소 차단으로 포르피린이나 그 전구물질이 다량생산되는 선천성대사 이상으로 야기되는 질병이다.

→ 판헤마틴 주 (hemin); 한국애보트 공급



Pharmacoeconomics의 석학 서동철 교수,

# 모교 강단에 서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인 럿거스대학교 약학대학 약업경제 및 경영분야 교수이자 뉴저지 의치과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 서동철 박사가 올해 2011년 봄학기부터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모교 약대 졸업(약 23회) 후 모교 대학원 약물학 전공 석사,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 MBA에 이어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보건경제학 및 약물경제학 (Health Economics and Pharmaceutical Economic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특이한 경력의 서동철 교수는 대학에서 약물경제학, 약국경영학, 임상연구설계 등의 강의와 함께 제약 경제정책 및 의약품 경제성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세계적인 연구자로 명성이 높다.

약학과 경영학을 두루 섭렵한 탄탄한 이론과 실무의 효율적 접합을 배경으로 서동철 교수는 보건 및 약업경제정책 분야에서 의약품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한 연구, 특허가 약가에 미치는 영향, 의료보험에서 의약품에 관련된 보험정책 연구, 의약품비 지출의 변화 경향 및 의약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의약품 투여시 오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의 적절한 수가 측정, 약료가 환자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측정도구의 문화 및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보정에 대한 검증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미국약학대학 협의회로부터 신진연구자상, 미국임상약학회로부터 성과연구상, Thomson Medstat으로부터 약물경제성 평가 최우수연구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5년 동안 관련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비 수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럿거스대 종신교수직 및 국제의약품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직 등과 지금까지 미국에서 쌓은 모든 명성과 경력을 포기한 채 서동철 교수가 모교 강단에 서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동년배의 한국인의 정서가 배경이 된 장남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더 늦기 전에 모시겠다는 소박한 마음과, 세계 의료의 중심 현장에서 취득한 폭넓은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여 모교 후배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합쳐진 결과가 낳은 산물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동철 교수는 학교내에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준비중인 연구소 설립이 완성되면 우수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현재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약가제도 문제, 의약품의 오남용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제약산업이 외국에 진출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등 여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R&D 센터의 완공과 함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에 이른 바로 그 시점에 모교에 등지를 틀게 된 서동철 교수에게 많은 동문들의 성원과 격려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허인회 (4회) 명예교수

▶ 가도(賈島)의 시

旅遊(여유): 타향을 여행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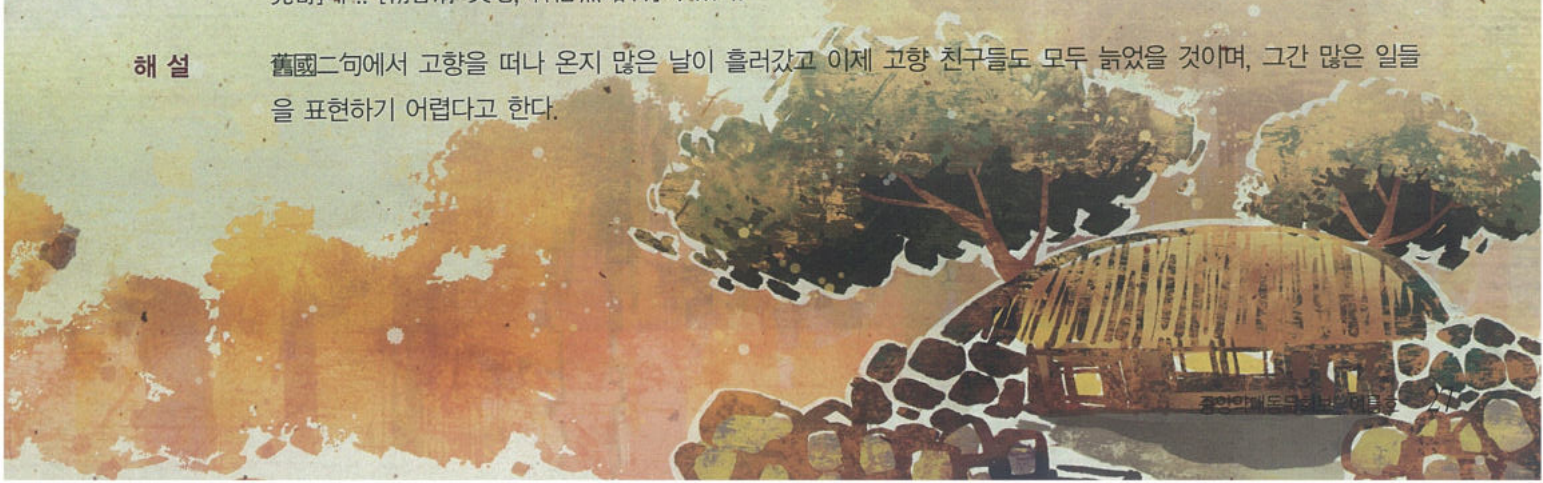
此心非一事(차심비일사)	내 마음 속에 많은 일이 있어
書札若爲傳(서찰약위전)	편지로 써서 전해야 할 것 같네
舊國別多日(구국별다일)	내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인지
故人無少年(고인무소년)	옛 친구들은 더 이상 젊지 않겠지
空巢霜葉落(공소상엽락)	빈 새집에는 서리 맞은 잎이 떨어지고
疏牖水螢穿(소유수형천)	물가 반딧불이가 낡은 창호를 통해나가네
留得林僧宿(유득림승숙)	숲속 스님 절에서 머물며
中宵坐默然(중소좌묵연)	아무 말 없이 앉아 밤을 보내네

WHILE TRAVELING

With so much on my mind,  
it's hard to express myself in letter.  
How long is it since I left home?  
Old friends are no longer young.  
Forested leaves fall into empty bird nests;  
river fireflies weave through open windows.  
I stop at a forest monk's  
and spend the night in quiet sitting.

**한자의 뜻** 旅遊: 오랜 동안 他鄕에 客居. 書札; 편지. 舊國; 고향. [莊子·則陽]에 舊國舊都, 望之暢然이 있다. 空巢; 빈 새 집. 疏牖; 格子가 드물거나 혹은 破損된 窓戶. 林僧; 山林古寺에 있는 스님. 姚鼐의 [和厲玄侍御無可上人會宿見寄]에 ... [朝客清 貧老, 林僧默 晤禪]이 있다.

**해설** 舊國二句에서 고향을 떠나 온지 많은 날이 흘러갔고 이제 고향 친구들도 모두 늙었을 것이며, 그간 많은 일들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 지리산 블루스

| 박희용(23회)

변변한 등산화 한 켤레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햇수로 치자면 수락산 10년, 소백산 10년에 이어 지난 2003년부터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기어이 증명사진 몇 장 찍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다. 산꾼들끼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산에 대한 외경심은 커녕 낮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무조건 정상 찍고 거기서 고등학교 교가

부르고 오줌 한 번 누고(이걸 전문용어로 浩然之氣라 한다!) 그리고 내려와 한 잔 하는 것이 산에 가는 유일한 이유인 걸 먼저 고백해야겠다.

낮술과 게으름의 화신으로 나를 기꺼이 기억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천왕봉 새끼신령으로의 유쾌한 반란을 담아 한방 먹여 드리는 바이다.



## 프롤로그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대 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시지 마시고

- 이원규의 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 ★ D-1일차; 반역의 꿈을 안고 출발

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삼신산의 하나로, 지혜로운 이인의 산(智異山)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류산, 방장산 등으로 불리는 명산이다. 그러나 방랑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개국하려 할 때 전국의 명산에 기도를 올려 창업의 원대한 뜻을 물었는데 유독 지리산만이 반기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반역산 혹은 불복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언감생심 이런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 애시당초 강의나 교육이 없는 날은 홀연히 둔갑법을 써서 낫술과 게으름의 절묘한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공력을 쌓던 자에게 지리산 종주는 그림의 떡이요, 남의 밥에 들어있는 나물에 지나지 않았으리.

D-1일, 저녁식사가 끝나면서 집결장소에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하여 기대 반, 걱정 반의 묘한 감정들을 달래며 새로 산 배낭이며, 등산화를 핑계로 말문을 튼다. 산행에 앞서 각오를 다지는 간단한 출정식에 이어, 11시경이면 전세버스에 몸을 싣는다. 새벽부터 강행군이 시작되니 폭 자두라는 당부를 하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소풍 전의 설레임을 잠재우기는 틀린 일, 떠들거나 말거나 버스는 밤길을 기세 좋게 달려 나간다.

그리움은 삶에 대한 의지의 절실한 한 가지 표현이란다. 그리하여 또 어찌할 것인가, 떠남으로서 완성되는 나그네의 운명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 ★ 1일차; 벽소령까지 가야 내일이 편하다

지리산 자락으로 접어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듯 구절양장의 산길을 그래도 어둠을 가르고야 말겠다는 듯이 버스가 곡예를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제아무리 무심경한 분들도 잠에서 깨어 사뭇 달라진 새벽 공기의 위세에 숨을 죽이며 까닭모를 두려움에 잠시 몸서리를 치곤 한다.

새벽 4시-5시경 버스 종착지인 성삼재에 도착하면 그야말

로 밤새 대기하고 있던 차가운 바람이 엄습하여 신참 등산객들의 정신을 빼 놓는다. 언젠고 이 제대로 된 신고식을 피해간 적이 기억에 없다. 반쯤 기를 죽여 놓는 산신령의 새벽기침이 환영의식 제1조다.

입산신고가 끝나면 그래도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 묵묵히 행군, 1시간을 위명업 삼아 걷다보면 어느새 조용히 나타나는 노고단 산장이 정겹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는 기대감과 중압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입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시늉만의 아침 식사를 마치면 바로 노고단으로 이동, 원래의 노고단의 훼손을 우려하여 그 모양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등산로 옆 모퉁에 눈인사만 하고 지나친다.

1시간-1시간 반 정도 산행 후 10분 휴식을 반복,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단순명쾌한 진리 앞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앞서사람의 발뒤꿈치를 보고 걷고 또 걷는다.

보통은 전라와 경상의 물자가 교류하던 장이 섰다던 화개재에 이르면 점심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리산 종주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혹자는 5백 몇 계단인가를 실 틈 없이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 깔딱거리는 숨을 참기 어려웠던 기억이라고도 하지만, 나로서는 오로지 밥을 해먹기 위해 뱀사골 산장으로 기어 내려가 잠시 배를 채운 다음 다시 화개재까지 올라오는 이 코스가 아닌가 싶다. 이 큰 산에 필요할 때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다.

뱀사골 대피소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어느 해 여름인가는 비가 주루주루 내리는데 많은 인원이 몰려 취사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억지로 뜬 들인 밥을 김치와 버무려 처마 밑에 한 줄로 죽 늘어서서 죽기 살기로 입에 퍼 넣던 기억이 새롭다. 그 와중에도 C-레이션을 까먹던 팀이 측은해 보이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지.

날이 좋으면 오후의 커피 브레이크 장소인 연하천 대피소에서 마지막 피로를 풀기도 하고, 부상자가 많거나 눈이 얼어 붙어 행군이 더뎠다면 하는 수없이 연하천에서 1박을 하기도 한다. 다른 곳과 달리 연하천은 개인이 운영하는 산장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몰릴 때면 한바탕 난리법석을 치루기도 한다.

2005년 2월인가, 유달리 추운 날씨에 눈도 많이 왔었고 해서 연하천까지 오는 도중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행군은 처지기 시작했고, 연하천에 도달했을 때는 벽소령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오후 5시면 해가 지기 시작하

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산중에서 해가 지면 모든 행동은 끝이다. 산장에 억지로 구겨 넣을 수도 없었던 몇몇이 그야말로 밤새 통성기도하는 자세로 휘몰아치는 산바람 뒤에 숨어 울음을 깨물며 두려움에 떨던 그 몇 시간이 하마 길기도 길었다.

★ 해 지면 할 일이 없다

연하천 혹은 벽소령 산장에서는 그야말로 저녁식사가 끝나면 바로 취침에 들어간다. 잔뜩 긴장했던 몸들이 평소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다가 쫓기듯이 하루 종일 달려온 터라 특별히 자라고 하지 않아도 인원 점검을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코고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출발이후 세수는커녕 양치도 못하고 하루 종일 땀에 젖어 온갖 시금털털한 냄새로 머리가 아프지나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붙이는 파스에 뿌리는 에어로졸은 물론 멘소래담에 안티푸라민에 온갖 종류의 멘톨 향이 진동하여 다른 어떤 냄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가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루가 아쉬운 몇몇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그림자를 이루어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렇듯한 카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까지 북새통을 이루던 취사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산화를 깔고 앉아 배낭 속에 고이 모셔왔던 두꺼비 눈물을 맛보는 기쁨이 없다면 과연 이 산행을 시작했을 것인가.

어쭙잖은 산행 경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막내 가이드의 그 어마어마하고 무거운 배낭을 시발로 가이드들의 산행담을 듣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어느 해 겨울인가 같이 갔던 젊은 가이드, 엄모씨파가 아닌 박모씨파의 일원(똥, 반대라도 상관 없다)임을 강조하던 그 친구는 번잡함이 못내 싫다며 끝내 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달랑 깔고 비박을 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 2일차; 내친 걸음에 천왕봉까지

부득이 연하천에서 1박을 하게 되면 새벽 걸음으로 벽소령까지 주파한 다음 혹은 벽소령 산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전날 다행히 벽소령까지 도달한 후면 제법 느긋하게 아침을 즐기게 된다. 하루정도 지났을 뿐인데 일부는 베테랑 산악인같은 거드름을 피우며 느긋하게 담배를 꼬나물기도 하고, 조별로 사진을 찍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마치 어제 저녁 해질 무렵의 두려움에 잠시 절었던 기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가소롭다. 부상자들 상태를 체크한다. 가벼운 사람들은 하룻밤 자고 나서 거뜨해지기도 하지만, 부어오른 발목을 억지로 참고 진통제의 기적을 믿고 잠들었던 일부는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산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도 2일차라 제법 여유도 생기고 하여 첫날의 뻗뻗함에서 벗어나 농담도 주고받으며 발길을 옮긴다. 일곱 명의 신선이 거닐었다는 칠선봉에서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 한바탕 땀을 더 흘리고 나면 세석평전, 산장에서 콜라도 사 먹어가며 천왕봉 등정에 대한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며 점심식사를 한다.

봄이라면 일부러라도 세석평전 화장실에 앉아서 건너편 산록의 철쭉을 바라볼 일이다. 화장실 창틀을 통해서 바라보는 분홍의 향연이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후 나는 지리산을 오를 때면 큰 일 볼 것을 참고 참다가 드디어는 세석평전 화장실에 이르러 깊은 교감을 나누며 회포를 푸는 것이었다.

이때 다음날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판단하여 날이 흐리거나 눈비가 흩뿌릴 상황이면 일출보기를 포기하고 오후 산행에 이어 천왕봉 등정을 강행하는 것이고, 운이 좋아 날이 쾌청하다면 장터목산장에서 하루를 묵은 후 새벽에 천왕봉을 오르기로 조정하게 된다.

세석에서 장터목은 그야말로 가뿐하게 주파, 구름에 잠겨



있는 산장 앞 공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지리산 종주의 9부 능선을 돌파한 것을 자축한다.

장터목산장의 바람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막아도 어떻게든 한 대 피우려던 담배 생각마저 날려버릴 만큼 매서운 바람이 분다. 일몰 직전 산장 입구에 달려있는 온도계의 눈금은 영하 19도. 어느 해 봄 장터목의 한가로움이나 여름의 별 해는 밤, 가을 저녁의 눈물 시리게 불타던 노을의 기억은 사치일 뿐, 빨리 모포 수령 후 입실하라는 산장지기의 방송 멘트가 절실히 기다려진다.

아쉬운 것은 첫날 기분에 겨워 두꺼비 배분에 대개는 실패, 천왕봉 등정의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가 중도에 썰렁해지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알코올 성분을 조달할 길이 없어 언제나 그렇듯 농담으로 마무리한다. 복불복으로 산 아래까지 뛰어가서 소주사오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3일차; 증명사진도 못 찍고 쫓겨 내려온

#### 칼바람의 천왕봉

운이 좋아(3대째 내리 적선한 공덕이 쌓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일기가 쾌청하다면 새벽을 서둘러 천왕봉을 오르게 된다. 잠에서 채 깨지도 않고, 그간의 산행에 누적된 피로로 몸은 천근만근인데, 게다가 눈까지 내리 아이젠을 열기설기 걸고 산을 오르자면 두 번 다시 올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쑥 들곤 하지만, 그도 잠시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야말로 평생 한 번도 오르기 힘들다는 천왕봉을 오른다는 기쁨에 가뿐해 지는 기분을 억누를 수 없다.

그러나 어디 천왕봉이 함부로 속살을 가볍게 보일 것인가. 그야말로 산 중의 산, 장터목에 이르면 이제 다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비무장으로 가볍게 시작한 산행은 온전히 새로운 산 하나를 등정하는 풍미를 맛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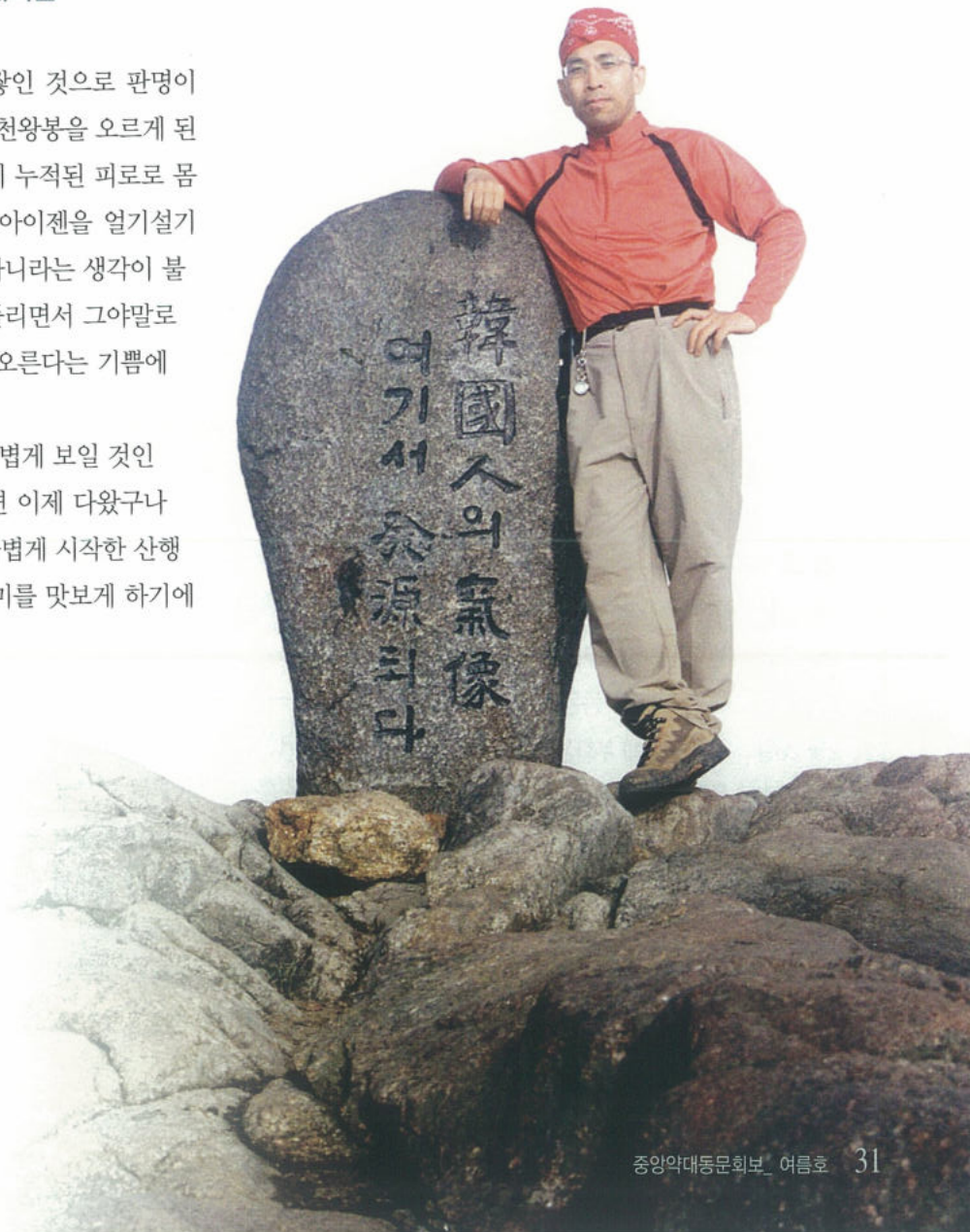
한 때는 나무가 뻗뻗했다는 제석봉, 도벌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방화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사진에서 폼나게 보이는 몇 그루 고사목이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안 그래도 고즈넉한 기분이 삼삼한데 안개라도 자욱이 낀다면 그 쓸쓸함이 가슴을 저며 오는 기분을 어디에다 비교할까? 지리산 종주에서 가장 아끼는 풍경 중의 하나다.

통천문을 지나 드디어 천왕봉, 겨울이면 '韓國人의 氣像 여기서 發源되다' 라는 지표석에서 증명사진 한 장 찍기가 어려울 만큼 몹시 매운 칼바람이 몰아친다. 날씨 앞에 주눅이 들기를 몇 차례, 어느 해 5월 쾌청하다 못해 눈이 시린 하늘을 배경으로 사방을 둘러볼 수 있었던 호기로움!

다시 장터목에서 마지막 아침을 챙겨먹고 오전 내내 백무동으로 하산, 막걸리가 있는 주막집 점심 풍경에 이어 운이 좋으면 지리산 온천에서 30분-1시간 온천욕을 하고는 서울로 발길을 돌린다.

#### 에필로그

천왕봉 일출은커녕 지리산 자락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자들이 행세하는 세상!



# 2011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 ■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학년	성명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082740	4	박혜진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082727	4	남경우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082776	4	이소영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082741	4	배주현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82796	4	정윤선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82806	4	조혜윤
본동문회	1,000,000	A반	20095388	3	최예슬
본동문회	1,000,000	A반	20095193	3	박영은
본동문회	1,000,000	B반	20095856	3	김지훈
본동문회	1,000,000	B반	20095713	3	이윤정
여동문회	500,000	약학	20072724	4	서지희
여동문회	500,000	B반	20095625	3	백지연
안산동문회	500,000	약학	20082818	4	현한빛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82728	4	남명화
약제반동문회	1,500,000	약학	20062697	4	박세훈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약학	20062671	4	김병선
나사모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62673	4	김영준
한미약품	4,799,000				교수연구 지원금
계	20,299,000				

## 애경사

### 결혼

1월 8일 이정구(12회) 이사 자녀결혼  
 1월 15일 변도문(10회) 이사 자녀결혼  
 2월 25일 유병태(11회) 동문 자녀결혼  
 2월 26일 김경오(19회) 부회장 자녀결혼  
 3월 25일 윤종준(15회) 부회장 자녀결혼  
 4월 24일 전영표(14회) 이사 자녀결혼  
 4월 30일 박종화(23회) 이사 자녀결혼  
 5월 6일 정진모(14회) 부회장 자녀결혼  
 5월 22일 권오규(20회) 이사 자녀결혼  
 5월 28일 박전희(21회) 이사 자녀결혼

5월 29일 김동연(21회) 이사 자녀결혼  
 6월 19일 김종성(13회) 이사 자녀결혼

### 부음

1월 3일 여상돈(29회) 동문 부친상  
 1월 5일 김홍주(21회) 동문 부친상  
 1월 27일 하재일(26회) 동문 모친상  
 3월 6일 조석현(25회) 이사 빙모상  
 3월 16일 엄태행(14회) 동문 빙부상  
 3월 26일 오세일(15회) 동문 빙부상  
 4월 4일 김보원(34회) 부회장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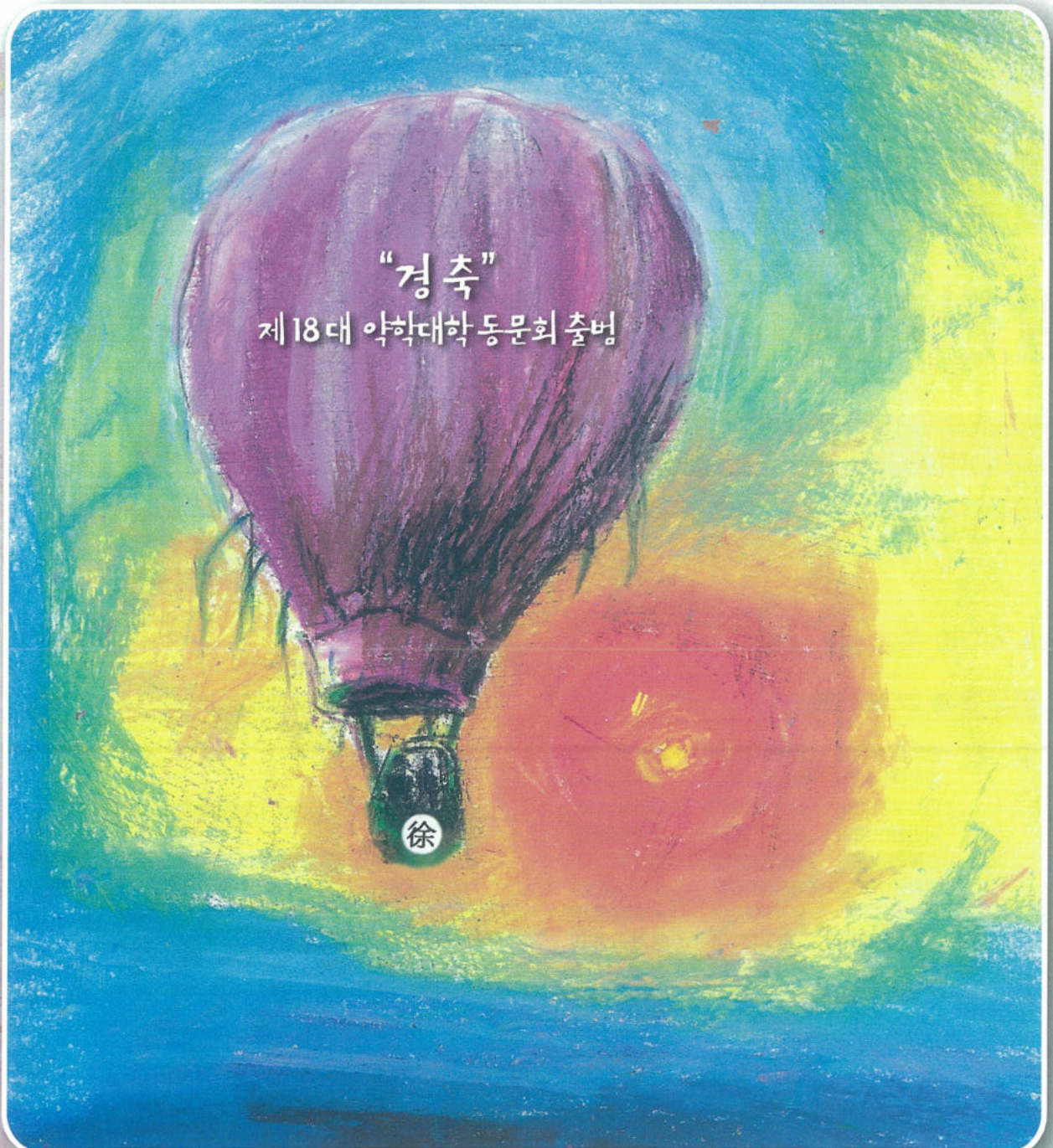
4월 11일 이덕남(2회) 동문 별세  
 5월 4일 정현수(21회) 동문 모친상  
 5월 16일 윤규형(24회) 이사 빙부상  
 5월 23일 우경아(36회) 이사 부친상  
 5월 26일 이경옥(19회) 부회장 시모상  
 6월 5일 백광현(19회) 이사 빙모상  
 6월 28일 백기홍(21회) 동문 모친상



# 黎明의 나라...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 발전기금 조성 내역

발전기금 현황 (2011. 7. 15 까지) **총 37억 5백 6십만원**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http://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지역별 통계 (단위 : 만원)

**교 수** 총 27,660 만원

교 내	손의동(1700)	김대경(1500)	황완균(1000)
	김하형(1000)	심상수(1000)	임채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창중(900)	황광우(800)
	손동현(800)	천영진(800)	염정록(700)
	최형균(700)	이재휘(700)	조사연(700)
	홍순각(600)	오경택(500)	이도익(500)
	김홍진(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희(500)	한상범(500)	김중갑(500)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타 교	김진학(1000)	제현동(500)	김동석(300)
	오유진(300)	주왕기(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김형춘(360)

**학 생** 총 5,350 만원

**역대 동문회장단** 총 32,9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13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묵(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렬(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5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김명웅(1000)

**단체 기부 총 59,490 만원**

일동제약주식회사(50000)	중삼친목회(300)
약대기금(3200)	약품물리화학동문회(1740)
기업체후원(700)	7회 동기회(500)
7회 약우회(500)	12회 동문회(500)
1회 동문회(4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중약대11회 40주년 기념(300)
2회 졸업생(200)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64여중회 회원일동(100)
미주(L.A.) 3회 동기회(50)	(주)한미홀딩스 (479.9)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60,800 만원**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정형식(60,000)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오호정(300)

**개인·부부 동문 총 242,50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4명	손동현(8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2회 6명	고두흔·박명재(700)	홍순각(6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200)	한성순(100)
3회 4명	김용옥(35000)	한만우(1000)	김석재(300)
	조영만·이정재(50)		
4회 8명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해서봉열·나광재(500)		
5회 4명	이해석·강태일(1000)	박명자·고두흔(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6회 13명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규(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현(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이현영(300)		
7회 24명	이기황(1150)	유영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현(5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재(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차승배(300)
	한철희(300)	정연홍(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중(60)	이정자·조영만(50)
8회 19명	이백천(1500)	임상묵(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재(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재(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9회 10명	권혁구(1000)	김홍래(1000)	김영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500)	노신희·이기안(500)
	박성학(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10회 13명	방순환(12000)	박호일(1300)	유정새(1000)
	김광일(500)	이대운(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서정목(300)		
11회 13명	김창중(900)	정덕호(5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남기탁(500)	김승업(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송병기(100)		
12회 24명	박영찬(1000)	김용환(1000)	최덕구(1000)
	심재웅·구옥재(1000)	김승배(1000)	황순오(1000)
	김 구(1000)	이상우(500)	남기탁·홍금자(500)
	강옥희(500)	우준하(500)	조택상(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대건(300)	문혜성(240)	최창목(100)
	민명임(100)	이원주(100)	김초성(100)
13회 12명	안병식(1000)	이종각·박종애(500)	문재빈·김애련(500)
	서국진(500)	조성복·홍순경(500)	김중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종목(300)
	김병현(500)	서효석(300)	김신미(10)
14회 8명	김명웅(1000)	정도연(1000)	김종렬(500)
	윤대봉(500+500)	하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박기진(300)	
15회 9명	조찬휘(500)	김용의(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위혜주(300)
	구옥자·심재웅(1000)	박영경(300)	황인영(300)
16회 13명	강명채(500)	홍순경·조성복(500)	박종애·이종각(500)
	장건(300)	최광식·전소희(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우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		
17회 12명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500)	김민수(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18회 9명	강응모·성낙순(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중형(300)	김애경(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남애숙(200)
19회 12명	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
20회 25명	임경원·이현숙(1,000)	박기배(600)	방금숙·선우영환(500)
	정찬현(500)	이상일(500)	김현태(500)
	김홍진(500)	김영섭(330)	강혜욱(300)
	김종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김형춘(360)		

21회 29명	이세진(500) 백운경(550) 이병규(500) 이상준(500) 홍종오(500) 한성희(300) 송진용(300) 김병무(300) 김대일(300) 신길득(300)	백기홍(500) 박제천(500) 박전희(500) 최병철(500) 김정기(300) 안병헌(300) 이진배(300) 김수배(300) 강성무(300) 전명선·김민숙(600)	이상일(500) 김중호(500) 지기봉(500) 장철숙(100) 김성만(300) 신상길(300) 유승률(300) 어경남(300) 이규섭(300)	29회 15명	김은진·이재해(500) 강철선(300) 안성진(300) 이종민(300) 장우성(300)	이 준(310) 김영자(300) 유종운(300) 서경원(300) 정진호(300)	강대용(300) 손병로(300) 유인석(300) 이 철(300)
22회 19명	손의동(1700) 장상대(500) 이준상(500) 한만영(360) 박동우(300) 최광훈(300) 이상돈(100)	장용운(800) 김홍진(500) 유대식(500) 강희윤(300) 전일오(300) 심재호(300) 전명선·김민숙(600)	정진호·강명해(500) 고석순(500) 오황영(400) 김철수(300) 이정석(300) 이영욱(300)	31회 6명	이현숙·임경원(1,000) 변동성(300)	김하형(500) 박건규(50)	김진홍(300)
23회 19명	박종화(1,050) 공인호(300) 김항만(300) 이승하(300) 임준석(300) 강호영(100) 나용태(300)	권석형(500) 김수중(300) 양재업(300) 이원길(300) 정덕기(300) 이정대(100)	이도익(500) 김영식(300) 정원국(300) 임상규(300) 조근태(300) 박희용·김미경(500)	32회 7명	고은미(300) 서수경(300) 손수정(200)	박은미(300) 채영주(600)	조양연(300) 서용욱(240)
24회 23명	최영욱(1000) 최재윤·김윤경(500) 임무호(500) 오동근(300) 이영주(300) 홍용기(300) 이규삼(100)	윤규형(500) 조종래(500) 함삼균(350) 윤원철(300) 정상수(300) 황규진(300) 김태두(300)	김관식(500) 김승재·김희식(500) 이범도(310) 이광섭(300) 김상현(300) 함한성(300) 윤세형(240)	33회 4명	이재휘(700) 박재훈(240)	임희원(300)	강석연(300)
25회 15명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500) 고성권(300) 이내홍(300) 최두주(300)	손현우(600) 조석현·임홍욱(500) 김영식(300) 이현수(300) 김춘규(400)	성낙순·강영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34회 5명	민성철(300) 한일권(300)	배규환(300) 김영미(20)	이선우(300)
26회 19명	심상수(1000) 이창훈·이숙희(500) 김영후(300) 최민규(300) 선우일원(300) 조용백(300)	황완균(1000) 하재일(500) 라중우(300) 문형철(300) 이영준(300) 김학철(300)	김상현(300) 함한성(300) 윤세형(240) 성낙순·강영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35회 3명	황광우(800)	곽정근(300)	권준한(300)
27회 26명	안산 79회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애(500) 최기선(310) 남상진(300) 안희영(300) 오영돈(300) 이무택(300)	손현우(600) 조석현·임홍욱(500) 김영식(300) 이현수(300) 김춘규(400) 김학철(300)	성낙순·강영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36회 7명	안영윤(300) 김동석(300) 방극상(50)	우경아(300) 김용구(300)	임성호(300) 박선영(200)
28회 27명	임채욱(1000) 김유곤(500) 이영주(500) 김영희(300) 양덕숙(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한용문·김미재(300)	이숙희·이창훈(500) 고재호(120) 김광선(300) 박우중(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박용석(100)	윤세형(240) 성낙순·강영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37회 6명	정병욱(300) 오상희(100)	방준석(300) 김학림(100)	정지훈(200) 한덕희(100)
			38회 5명	오경택(500) 제현동(500)	박용석(300) 박양혜(100)	조재형(300)	
			39회 4명	민경훈(500) 양성준(100)	박종호(300)	박종혁(300)	
			40회 2명	박성욱(500)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1명	구영준(300)			
			42회 1명	이창경(100)			
			43회 3명	신명숙(300)	강규태(400)	김중호(100)	
			44회 2명	김수길(300)	문상희(100)		
			49회 1명	김원호(500)			

■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9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옥규(300), 김홍자(300), 정송수(300), 이정희(300), 정진모(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5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김태두(300), 박성학(5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의(300), 어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윤(300), 박용석(300), 조종목(300), 김홍진(500)

〈서울강북, 도봉구 지부 4명〉 심재용·고옥자(1000), 신상직(500), 조상오(300), 조효금(300)

〈서울강서, 양천구 지부 15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효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김애경(300), 김영미(20), 김민수(500)

〈서울관악구 지부 7명〉 이기안·노신희(500) 문재민·김애련(500), 김

종열(500), 박석동(500), 이상규(300), 안희영(300), 문혜성(240)  
 〈서울마포구 지부 3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장원규(500)  
 〈서울광진, 성동구 지부 5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최창목(100)  
 〈서울구로, 금천구 지부 6명〉 이해석·강태일(1000), 정진호·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옥(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 지부 3명〉 방만성·조순연(500), 이병규(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 지부 3명〉 김경오(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 지부 5명〉 고두흔·박명재(700), 이종각·박종애(500), 안병현(300), 조기현(300), 김영희(300)  
 〈서울서대문구 지부 5명〉 한석원(500), 정명진(500), 황순오(1000), 유인석(300), 문옥자(300)  
 〈서울서초구 지부 11명〉 황공용(500), 추의호(300), 이능세(300), 장영자(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섭(100), 이선애(100), 이준장(100), 김광일(500)  
 〈서울성북구 지부 2명〉 조찬휘(5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 지부 8명〉 이규진(500+500), 김원호(500), 한갑현(500), 김영부(500), 위성건(500), 김명일(300), 김미경(300), 진희역(300)  
 〈서울양천구 지부 1명〉 손수정(200)  
 〈서울영등포구 지부 6명〉 권학구(1000), 유정사(1000), 이상일(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400)  
 〈서울용산구 지부 5명〉故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 지부 10명〉 임상목(1000), 유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 박정근(300), 우경아(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 지부 12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전순희(500), 전상훈(300), 주원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이해룡(300), 이병천(300), 최면용(300)  
 〈서울중구 지부 3명〉 박영찬(1000), 조규동(300), 조근태(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 지부 26명〉 유영후(1000), 선우영환·방금숙(500), 조석현·임홍옥(500), 박제천(500), 자기봉(500), 신상길(300), 이양현(500), 김대희(400), 장용운(800), 윤춘수(300), 장재민(300), 전명선·김민숙(600), 김수중(300), 김안식(4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김동희(300), 전명희(300), 김용규(300), 고석일(300), 서용욱(240), 이경숙(50)  
 〈경기 군포시 지부 1명〉 이영주(500)  
 〈경기 김포시 지부 1명〉 김종성(400)  
 〈경기 동두천시 지부 1명〉 최광훈(300)  
 〈경기 고양시 지부 15명〉 김홍래(1000), 이재희·김은진(500), 박기배(600), 신성희(500), 김춘규(400), 함삼균(35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김미재(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상(50)  
 〈경기 광명시 지부 16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이(500), 최기선(310), 아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재(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송진용(300), 박재훈(240), 김중호(100)  
 〈경기 부천시 지부 6명〉 이창훈·이숙희(500), 김유권(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고재호(120)

〈경기 성남시 지부 16명〉 김 구(1000), 손현우(6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항만(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영준(300)  
 〈경기 수원시 지부 22명〉 임경원·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성낙순(500), 채명주(600), 김영혜·최명배(500), 김창길(300), 이내홍(300), 김영후(300), 김영자(300), 홍흥만(300), 김정자(300), 권세형(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홍(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 시흥 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운(300), 장우성(300)  
 〈경기 안산시 지부 17명〉 김승재·김희식(500), 최재윤·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재(300), 이청욱(300), 박복자(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홍설(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서효석(300)  
 〈경기 구리시 3명〉 최덕구(1000),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화윤(300)  
 〈경기 안양시 지부 22명〉 정찬현(5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홍(300), 조용백(300), 민명임(100), 이상돈(100), 이철규(50), 이상준(500)  
 〈경기파주시 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 지부 8명〉 박수길·이정애(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업(300), 라종우(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4명〉 김광식, 윤기숙(500), 조택상(500), 한덕희(100)  
 〈경기 하남시 2명〉 한성희(300), 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4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이진배(300)  
 〈경기 포천시 2명〉 차승현(300), 나용태(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북칠곡군 지부 1명〉 유환성(300)  
 〈경북김천시 지부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문경시 지부 1명〉 이창경(100)  
 〈경북안동 지부 1명〉 임무호(5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대구 광역시 7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백기홍(500), 최중숙(300), 남애숙(2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충남 홍성시 2명〉 조덕희(300), 윤광중(300)  
 〈충남천안시지부 4명〉 이장무·김영희(500), 김선기(300), 최옥출(100)  
 〈충남아산시지부 1명〉 백운경(500)  
 〈충북제천시지부 3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송병기(100)  
 〈경남 창원시 2명〉 김광선(300), 윤세형(240)

- 〈경남 밀양시 4명〉 정용국(300), 김대건(300), 박영경(300), 박종진(300)
- 〈부산시지부 29명〉 이백천(1500), 홍금자·남기탁(500), 조중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해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200), 권기동(100), 이현영(300), 황인영(300), 김승배(1000), 이원주(100), 해서봉열·나광자(500)
- 〈제주지부 3명〉 김병현(500), 오황영(400), 박기진(300)
- 〈강원지부 4명〉 김정웅(300), 이인재(300), 김학철(300), 신길득(300)
- 〈미주지부 11명〉 이기환(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종(60), 조영만·이정재(50), LA3회 동기회(50)
- 〈병원 5명〉 이대윤(3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 〈학계 45명〉 손의동(1700), 김대경(15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진학(1000), 황완균(1000), 심상수(1000), 임재욱(1000), 김하형(1000), 김진학(1000), 김창중(900), 황광우(800), 송동현(800), 천영진(800), 염정록(700), 최형균(700), 이재휘(700), 조사연(700), 홍순각(600), 이도익(500), 김홍진(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한상범(500), 김중갑(500),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제현동(500), 오경택(500),

- 오유진(300), 주왕기, 김희재(300), 임세진(300), 권광일(300), 김형춘(36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김동석(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9명〉 정형식(60,000), 김용옥(35000), 조의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용(1000), 정도연(1000), 박호일(1300), 윤규형(500), 강승안(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상우(500), 이상일(500), 천홍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해(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명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김중효(500), 박전희(500), 이성욱(500), 박성욱(500), 이준상(500), 장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한만영(360), 강석연(300), 서수경(300), 박양해(100), 양성준(100), 김원호(500)
- 〈기타 32명〉 학생회(535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허근희(300), 권영훈(300), 최만규(300), 91학번친목회(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충강(한인빈 학부모)(300), 유윤자(300), 박정배(300), 곽순자(300), 12회동문회(500), 1회동문회(300), 박종혁(300), 오호정(300), 64예중회(100), 중앙대 11회 40주년 기념(300), 김신미(10), 2회 졸업생 일동(200),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송병준(100), 황재수(200), 중앙대 50계단회(정영복)(100)

■ 약대R&D센터 네이밍도네이션 (단위 : 만원)

총 42,282 만원	
교수	손의동(300)
동문	김명섭(10,000), 정도연(10,000), 조정기(300), 양선삼(300), 안대훈(200), 이승해(100), 정만식(100), 갈원일(100), 황재수 박희숙 황대현(100), 최창조(50), 엄재우(12), 고기현(10)
직원	조주형(300), 우건식(300), 안미현(10)
기업체	(주)그래미(대표 남중현) (20,000)

편집후기

불보다 무섭다는 물... 불은 타고 남은 재가 있으나, 물은 다 쓸어버린다.  
 우연산 산자락에 부러움을 받았던 이웃 동네가 산에서 휩쓸고 내려온  
 토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마치 폭우처럼 법을 바꿔 세상을 바꾸려  
 는 정부 어처구니 없는 약사법 개정. 저지 되어야 하고 거부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 받아야 한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다시 화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새 회장단 출범!  
 작심 3일이 우리의 한계라면 그것부터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을 하는 일  
 당연히,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이루어야 할 동문 대단합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중앙대학교약대학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문 선·후배간의 지극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 그리운 얼굴들과 추억을 더듬는 선·후배님들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싣고 떠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길에서..... 길에게..... 길을 묻는....."  
 심정으로  
 동문 선·후배님들의 일상을 담아봅니다.  
 한갑현(26회) 편집위원

##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동문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약업계나 개국동문님들의 주변 사정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이하,본회) 제1차 회장단회의에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비와 일반회원들의 회비를 인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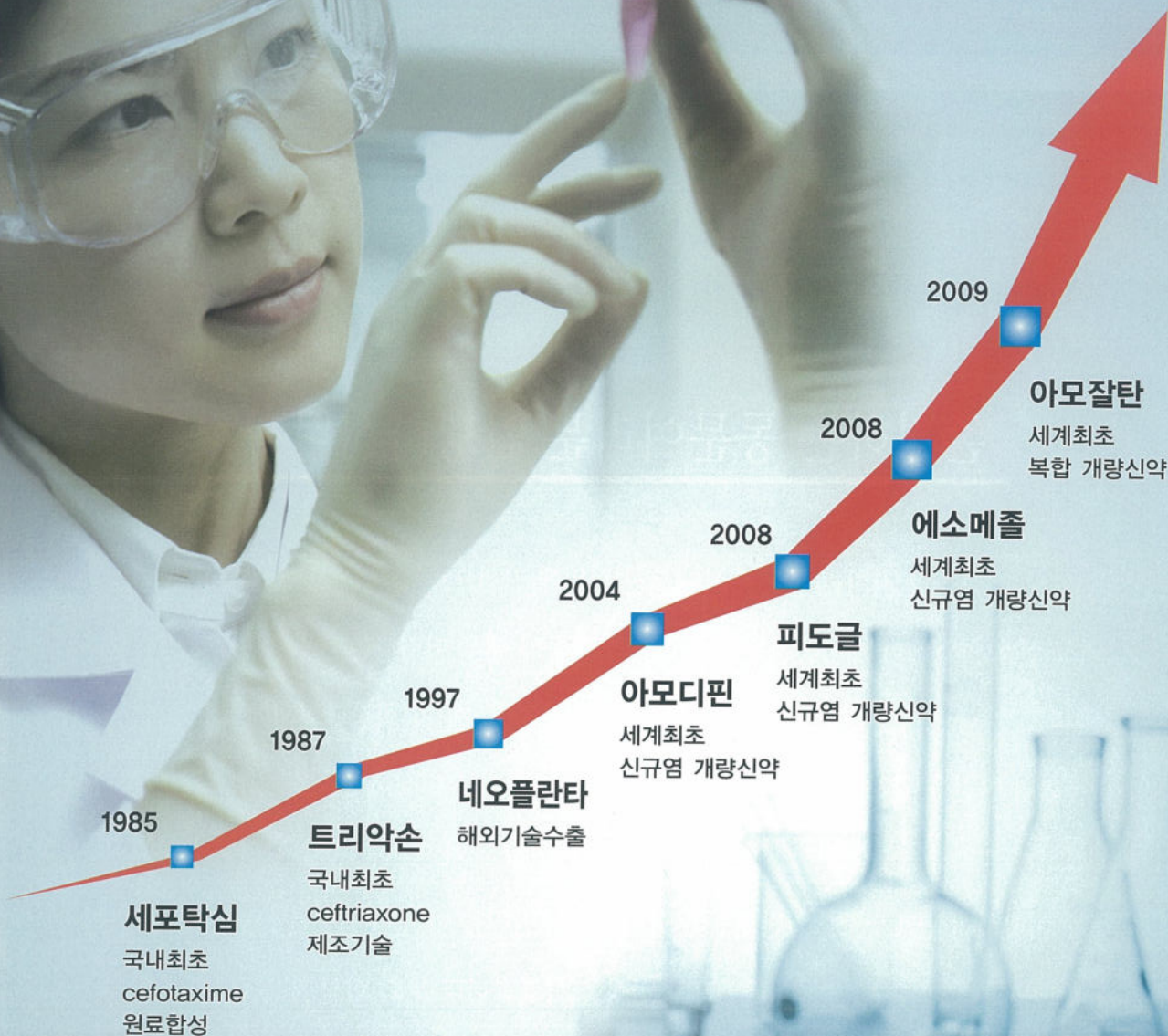
그 이유는 물가상승, 회관이전, 제약회사찬조금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현재 이사회비 년 12만원, 일반회원의 회비는 년 2만원을 이사회비는 년 15만원(25%상승)  
일반회원의 회비는 3만원(50%)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본회 회칙 제15조, 제16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30일

동문회장 서 국 진 드림



# “R&D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

##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 동탄 최첨단 연구센터

경기도 동탄에 2004년 개관한 최첨단 연구센터에서는 신약,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고난이도 퍼스트제네릭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한미약품이 미래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다국적사에 기술수출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1989년 스위스 로슈사에 「세프트리아손」 제법기술을 미화 6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였고,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마이크로에멀전」 제제기술을 미화 6,300만달러에 기술수출 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획을 긋는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였다.

### 개량기술,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고난이도의 합성기술, 다양한 제제화 및 DDS 개발 등 최첨단의 개량기술 개발과 신규 염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에소메졸」, 「아모잘탄」 등의 연이은 개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항암제 신약개발 집중화 전략(ORASCOVERY Technology)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과 오리테칸,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HM781-36B의 임상 시험, 다양한 신호전달 차단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 등으로 한미약품은 특화된 항암제 분야에 신약개발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지속성 단백질 기반기술 개발(LAPSCOVERY Technology)

새로운 재조합 캐리어를 활용한 지속성 단백질 의약품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단백질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써 한번의 투여로 수주 동안 충분히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LAPS-EPO, LAPS-GCSF, LAPS-Exendin 등 다수가 국내외 임상시험 중에 있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 21세기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개량기술 및 개량신약 개발에서 얻은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 유한양행, 모두가 알지만 모두를 아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진면모를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대적 제약업계를 이끌어 온 선도 기업, 진정한 세계화를 실천해 온 글로벌 기업, 독자적 첨단 기술을 만들어 온 혁신 기업, 투명경영의 길을 열어 온 정도기업, 나눔을 실천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알면 알수록 깊이 있고 다양한 색깔의 향기가 있는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향기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베콤씨** 하루 2일 가족건강



# 함께이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일동제약 70년...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 18대 서국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無방부제

세계 11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



808 808  
여명 808 ~ ♪  
음주전후 숙취해소  
마시자 808  
숙취해소 808 ♪  
정말 좋아요  
여명808

**벌써 갠겨?**



세계 발명왕  
상공현

- 제4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세계10대 발명전 대상 수상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